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The Evolution of Planning Theories in a Paradigm Perspective

이수장 강남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 주요단어 : 패러다임, 물리적 계획이론, 합리적 계획과정론,
교환거래 계획이론, 의사소통적 계획이론

목 차

- I. 서론
- II. 계획이론의 유형과 패러다임
 - 1. 계획이론의 유형
 - 2. 패러다임
- III.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 1. 패러다임적 계획이론의 선정
 - 2. 물리적 계획이론
 - 3. 합리적 계획과정론
 - 4. 교환거래 계획이론
 - 5. 의사소통적 계획이론
- IV. 결론

I. 서론

미래의 행동을 교도(guide)하는 계획(Forester, 1999: p1)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개념, 목적, 과정, 그리고 계획가의 역할 등에서 많은 변화 내지 발전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전후 계획이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Hudson(1979)은 1970년대까지의 계획을 i) 총괄적(synoptic) 계획, ii) 점진적 계획, iii) 교환거래 계획 iv) 창도적 계획, v) 급진적 계획 등으로 구분한다(이를 SITAR라 부른다).

Alexander(1984)는 합리론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네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i) 의례적(ritual), ii) 회피적(avoidance), iii) 포기적(abandonment), iv) 모색적(search) 접근방법이 그것이다. Taylor(1998a)는 i) 물리적 계획, ii) 체제적 계획 및 합리적 계획과정론, iii) Marx적 구조적 계획관, iv) 의사소통적 계획이론 등으로 시대별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¹⁾

특히 전후 계획이론의 변화를 패러다임 변화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가들이 있는데(Galloway & Mahayni, 1974; Dalton, 1986; Innes, 1995; Sandercock, 1998; Taylor, 1999), 이 용어는 사상사에 있어 주요한 변화를 기술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적 역할을 하였으나 패러다임적 지위까지 오른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패러다임적 계획이론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몇몇 이론을 추출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성격이 이론적이므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우

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구미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II. 계획이론의 유형과 패러다임

1. 계획이론의 유형

계획이론이란 용어만큼 모호한 용어도 없을 것이다. Faludi(1973)가 계획이론을 절차적 이론(procedural theory)과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y)으로 구분한 이후 계획이론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전개되었다.

1) 절차적 이론(theory of planning)

절차적 이론은 계획활동자체에 관한 이론으로 계획과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계획이론의 기초가 되는 도구적·기술적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 지식과 행동, 연구와 실제 간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Schon, 1983). 특히 목표와 수단 간의 구별이 합리적 계획을 이해하는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계획의 대상에 상관없이 계획이 추구하는 이념, 가치, 목적, 그리고 계획의 원칙과 절차, 기구와 제도적 장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이론은 합리적 계획이론과 연계되어 있으며, Faludi는 이를 진정한 계획이론으로 보고 있다(Taylor, 1998b: p66). 이 이론은 계획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계획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계획과정이 작동하는 방법을 기술·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이론은 그 맥락에 관계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전문분야에 공통적인 것

1) 각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다. 즉 물리적 계획은 Keeble(1969), 체제적 계획은 McLoughlin(1969), 합리적 과정론은 Faludi(1973), 구조적 계획이론은 Paris(1982)와 Dear & Scott(1981), 의사소통적 이론은 Mandelbaum, Mazza & Burchell(1996)이다.

을 다루는 이론들이다.

2) 실제적 계획이론(theory in planning)

실체적 이론은 실체적 현상과 계획되어질 현상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활동의 계획에 있어 각기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이는 해당분야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으로 계획의 과정이 아닌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은 환경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체제론적 계획이론과 관계된다 (Taylor, 1998b: p66).

3) 계획을 위한 이론(theory for planning)

이 이론은 계획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정치적·도덕적 측면의 이론, 즉 계획의 방향설정과 관련된 규범적 이론으로서 계획을 위한 사회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계획이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i) 허위입증가능성(falsifiability), ii) 대응성(responsiveness), iii) 정의(justice), iv) 잠재적 효과성(potential effectiveness) 등을 들고 있다(McConnell, 1981).

4) 계획에 관한 이론(theory about planning)

계획에 관한 비판적 이론으로서, 경험적 연구나 실제 경험에 기초한 이론이다(Friedmann, 2003: p8). 여기서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비판적 계획이라고 불려왔다. 이러한 비판은 마르크스주의(Marxist), 정치경제, 또는 지속가능성 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이것들은 계획에 관한 일반적 연명인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획이론이라 함은 절차이론을 말하나, 이는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게 하지만 구체적 계획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계획이론은 분명히 정의된 객체와 이론(특히 실증주의적 과학전통에의)으로부터 요구되는 객체 간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분명한 정의의 결여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이 현대사회의 종교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Forester는 계획을 질문하고 관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Forester, 1980. p275).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정의하며 어떤 사람들은 협상과 갈등해소의 과정을 강조한다. 계획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분야인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지리학으로부터 이론을 빌려오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계획이론은 집합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회과학 내 다양한 분과학문으로부터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계획이론은 그 자체가 별개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주어진 맥락에 따른 이론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패러다임

계획이론의 변천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Alexander, 1984). 패러다임이란 특정한 과학 영역 내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이론의 근본적 집합, 공통된 규범과 가치를 말한다. 이는 Kuhn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Kuhn, 1970), Kuhn은 과학 공동체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단계를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 전 패러다임 기간으로 중심 패러다임에 대해 공동체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며, ii) 패러다임 발전의 기간으로 공동체 내에서 패러다임이 일단 지지자들을 끌 만큼 충분히 성숙된 것을 말하며, iii) 패러다임 명확화의 기간으로 조

사와 문제해결의 모수(parameter)가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며, iv) 후기 패러다임 팽창 기간으로 이상(anomaly)이 생겨나고 그 이상이 패러다임의 지위에 반영되는 것이며, v) 위기의 기간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그 이상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패러다임 대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²⁾

Kuhn은 패러다임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하나는 주어진 과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기술 등의 전체 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그 배열에서 한 종류의 요소인 구체적인 수수께끼 해결책으로 모델이나 예로 사용될 경우 정상과학의 나머지 수수께끼의 해결을 위한 기호로서 명백한 규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Kuhn, 1970: p175). 이에 대한 그의 정의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나 이것이 과학의 발전에 대한 그의 관점에 큰 영향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다. Kuhn의 의견에 따르면 적실한 지식의 탐구는 패러다임 없이 우연히 이루어져 왔다. 기본적으로 모든 결과와 지식은 동등하게 타당하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특정한 과학 영역 내에서 체계적이며 누적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많은 이상이 생겨날 것이고, 패러다임 내에서 수용된 이론과 관점에 관해 근본적 의심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이론이 수용되며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비교적 우연적이다.

III.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1. 패러다임적 계획이론의 선정

여러 가지 계획이론 중에서 패러다임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대표적인 기준이 과학철학, 즉 인식론이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세기를 지배한 인식론은 실증주의이며, 아직도 그 위력이 남아 있다.

실증주의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i) 확증주의(verificationism), ii) 허위입증가능주의(falsificationism), iii) 준확증주의(confirmationalism) 등이 있다. 그리고 실증주의와 패를 같이하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벗어나려는 무정부적 실재론(anarchistic realism)도 있다(Camhis, 1979). 한편 실증주의를 거부하는, 즉 모더니즘에서 탈출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상대주의(epistemological relativism)가 있다(Taylor, 1998a). 그리고 모더니티 프로젝트를 도구적 합리성이 아닌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대체하려는 Habermas의 해석학적 비판이론도 있다(Forester, 1989; Healey, 1997).

둘째, 계획이론의 시대별 변화를 감안하여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간주되는 것에 패러다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Taylor, 1998b).

끝으로 계획이론을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계획실무자 또는 계획이론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서의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 즉 사회변동에 대한 성찰로서의 이론이다. 이러한 양자 중에서 계획이론 패러다임은 주로 후자에서 나오고 있다(Scott & Roweiss, 1977). Alexander(1984)도 이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경쟁적 이론, 즉 생태적 접근방법, 사이버네틱적 체제관점, 전략적 계획과정, Hudson(1979)의 SITAR 등에서 패러다임을

2) Kuhn은 모든 위기가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 위기가 패러다임 전환 없이 해결되며, 때로는 그 위기가 조화될 수 없어 다음 세대의 과학 공동체가 해결하도록 한 쪽으로 내버려 둔다(Kuhn, 1970: p84).

확립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계획이론을 지난 반세기에 있어 패러다임적 위치를 점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즉 i) 물리적 계획이론, ii) 합리적 계획과정론, iii) 교환거래 계획이론, iv) 비판적 내지 의사소통적 계획이론 등이 그것이다. 이는 위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 특히 Dalton(1986), Friedmann(1998), Taylor(1998b; 1999)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 즉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을 태동케 한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2. 물리적 계획이론

1) 개념

1960년대 초반까지 도시계획은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되었다. 즉 i) 물리적 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 ii) 도시계획의 중심으로서의 설계, iii) 상세한 청사진으로서의 도시계획이 그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반적 의미에 있어 계획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³⁾, 도시계획도 계획 활동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른 형태의 계획과 구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도시계획은 물리적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계획이나 경제계획과는 달리 물리계획, 즉 토지계획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Keeble, 1969: p1).

도시계획을 토지이용과 건물의 물리적 입지, 형태 등의 물리적 계획 활동으로 간주할 경우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을 도시설계로 보게 되는 것이다. 개별적 건물이나 공간의 설계라기보다는 전체로서의 건물과 공간의 설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건축설계의 확대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토목공학자, 측량가와 더불어 건축가였던 것이다.⁴⁾

도시계획을 물리적 설계로 간주할 때 도시계획가의 일차적인 임무는 계획안의 산출이었으며 그것도 미래의 개발을 정확하게 고도(guide)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도시의 미래형태에 대한 청사진이었다. Keeble은 도시의 형태가 어떻게 계획되어야 하는가를 네 가지 상세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을 Keeble은 계획이론으로 명명하고 있다(Keeble, 1969: pp118-21).

2) 목표가치

도시계획을 물리적 계획과 설계로 간주한 이면에는 도시계획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물리적 환경의 창출이라는 규범적인 가치가 존재하였는데, i) 유토피아적 종합성(Utopian comprehensiveness), ii) 반도시적 심미주의, iii) 고도로 규칙적인 도시구조, iv) 계획목표에 대한 합의전제 등이 그것이다(Taylor, 1998b: p22-35).

이상적 거주지에 관한 유토피아적 틀은 바람직한 가상적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상이

3) 그 대표적 논의가 Hayek와 Finer 간의 계획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Hayek는 「The Road to Serfdom」이라는 책에서 계획을 대중을 교묘하게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여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Finer는 「The Road to Reaction」에서 Hayek 주장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이론상의 모순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오히려 계획은 개인적 자유를 신장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경우 1913년 British Town Planning Institute가 설립되었으나 1971년에 비로소 이 학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되었다.

도입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Howard의 ‘전원 도시’ 및 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다.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전통에는 종합성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Howard와 Le Corbusier의 계획안은 전체 도시에 관한 것이었다.

유토피아적 종합성의 일면에는 개혁적 변화라는 성향이 있었지만 다른 일면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전통도 공존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반도시주의(anti-urbanism)라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상호보완적 경향이 이를 구성하였다. 그 하나는 가능한 한 농촌과 전통적 전원 거주지를 유지·보존하려는 욕망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대도시, 특히 산업도시에 대한 싫음이었다.

195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차통행이 폭증하자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질을 유지하면서 도시 내에서 자동차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처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호모순적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봉쇄하면서 도시의 내부구조를 규칙적인 세포구조로 만드는 이른바 조밀한 도시(compact city)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물리적 계획관에서는 도시계획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것은 공익의 제고였으며 도시계획가가 해야 할 임무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발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바로 청사진식 계획안이었다.

3) 비판

첫째, 물리적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은 주로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새롭고 좋은 환경의 개발이 사회적 환경의 상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즉 물리주의적 도시계획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생활의 상실을 야기시켰는데 이는 도시계획가로 하여금 물리적 환경에만 관심을 갖게 한 반면 비물리적인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공동체의 생활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물리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Broady, 1968: pp13-5).

그리고 도시계획가들은 주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주거지 등을 계획함에 있어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물리주의적 계획관에 일부 기인하기도 하지만 계획가들이 갖는 전문가적 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즉 가치로운 거주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관한 판단은 순수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후 도시계획은 청사진적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건축계획과 같이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정밀성과 상세함을 요구한 도시계획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세한 입지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장래 도시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도시계획가들은 그들이 다루는 현상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Jacobs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녀에 의하면 도시계획가들은 그들이 다루는 도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도시생활의 문제를 이해·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는 단순한 유토피아적 비전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사이비과학(pseudo-science)으로 몰아붙였다(Jacobs, 1961: p23). 특히 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를 그 대표적인 본보기로 규정하고 있다.

Jacobs는 또한 깔끔하게 질서잡힌 이상적인 도시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개별적 용도지역으로 정리된 토지이용, 이에 따른 세포양상의 도시조직, Radburn식의 보행과 차량통행의 분리 등과 같은 원칙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혼합적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상호지원할 수 있는 복잡하면서 다양성이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생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Ibid.: pp23-4).

계획은 분화되지 않은 집단으로서의 사람 내지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정책과 같은 공공계획에서 어떤 원칙을 추구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Meyerson & Banfield, 1955). 다시 말해 계획에 의해 상이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다수일 경우 각 집단이 갖는 가치 역시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비판이 새로운 도시계획이론과 이에 따른 계획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시금석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도시계획가의 역할

물리적 계획과 설계로서 도시계획을 개념화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규범적 이상이 별 논쟁없이 전제될 때 도시계획가가 하여야 할 역할은 기술적 계획가(technician-planner)다. 이러한 기술적 계획가로서의 역할은 정도의 차이

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3. 합리적 계획과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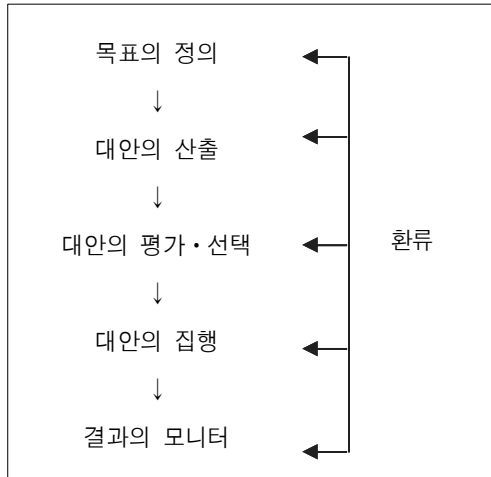
1)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Faludi는 절차적 계획이론과 실체적 계획이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Faludi, 1973: pp3-20). 이러한 Faludi의 주장은 그 후 여러 비판에 직면하지만, 합리적 계획과정이론의 지평을 열게 하였다. 합리적 계획과정은 일련의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i) 목표의 설정, ii) 가능한 대안의 산출 및 검토, iii) 각 대안의 파급효과의 예측, iv) 목표와 파급효과의 비교, v) 최선의 대안선택 등이 그것이다 (Camhis, 1979: p30).

그런데 계획과정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택된 대안은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계획과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이라기보다는 합리적 행위이론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나아가 계획안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그 효과를 모니터해야 하므로 합리적 계획과정론은 지속적인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다음 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환류되어야 하므로 합리적 계획과정은 최종상태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모형은 사이버네틱(cybernetic) 계획모형이라고 묘사될 만큼 계획을 통제와 연계시키고 있다(Giddens, 1994, p58). 사이버네틱 통제라는 개념에는 모더니즘으로 특징되는 사유 및 행동 양식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합리적 과정이론에는 전후 근대주의적 낙관론이 숨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 물리적 계획관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Taylor, 1998b: p60).

이상의 합리적 행위과정으로서의 계획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합리적 행위과정으로서의 계획



이와 같이 합리적 계획을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청사진 생산이라는 전통적 계획관의 거부를 의미한다. Faludi는 청사진적 계획과 과정적 계획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Faludi, 1973: pp131-49).

2) 도구적 추론모형으로서의 합리적 계획이론

합리적 계획이론은 절차적 계획이론이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추론의 형식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계획이 추구하는 실질적 목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합리적 계획과정론은 도시계획의 목표에 관한 이론이 아닌 계획의 방법 내지 수단에 관한 것으로 이른바 도구적 계획론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후일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

3) 종합성과 부분성 논쟁

합리적 계획과정론에는 필연적으로 계획과 정책결정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법(comprehensive approach)의 채택을 함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수반된다. '합리적'이라는 개념 속에는 종합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과 이에 따른 모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완전히 종합적일 수 없으며, 계획가 또한 적절한 모든 정보를 습득·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Lindblom은 계획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이지 않으며, 단편적이며 점진적이며 기회주의적이며 또한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Lindblom, 1959).

4) 계획가의 역할

Faludi의 분류대로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으로 구분한다면 합리적 계획관은 후자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과학과 이를 계획 내지 정책결정에 적용하려는 보편적 관심사였다. 1950년대까지 도시계획은 일차적으로 예술(art)로 간주되었으나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그것은 과학으로 인식되었다. Giddens가 사이버네틱 통제모형으로 명명한 이것은 사회의 과학적 이해에 기초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에 대한 보다 큰 낙관론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는데 인간의 생활은 자연의 변덕에 종속되지 않고 합리적 이해와 행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제로서 환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방법을 적용할 때 도시와 환경은 인간의 복지를 극대화하도록 계획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낙관론은 18세기 계몽사상의 20세기적 표출인 것이다. 요컨대 여기서 계획가는 전문지식 내

지 기술을 가진 전문기술관료(technicalist)였다 (Taylor, 1998b).

4. 교환거래 계획이론

1) 의의

지금까지의 계획이론에서는 계획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도 수단 발견에 있어 하나의 종속변수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계획의 중심요소가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발달이라는 주장이 등장하여 계획자체를 일종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한다(Dunn, 1971; Hampden-Turner, 1971; Schon, 1971; Friedmann, 1973). 이는 행동계획모형으로 행동과 계획이 하나로 융합되어 과정모형의 단계가 없어져 버린다(Friedmann, 1969). 이러한 새로운 계획이론들 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Friedmann의 교환거래 계획이론(transactive planning)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계획이론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려는 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특징

Friedmann(1973)은 계획가와 계획이론가의 머리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론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그의 교환거래 계획이론은 계획가와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 간의 대화(dialogue)에 기초한 지속적이며, 상호적 학습과정으로써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회에 근거하고 있다. 효과적이 되기 위하여 소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대화는 계획가에게 자원인(resource person)과 탐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계획에 의해 영향받는 사람들은 실제적 지식, 규범 및 가치로써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Friedmann의 아이

디어는 일차적으로 학습하는 사회에 대한 그의 비전이며, 거기에서는 소규모 계획집단의 조직화된 네트워크에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Friedmann은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을 혁신의 전략이라 규정짓고 계획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중앙집권적 명령계획(command planning)이 비능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술관료들이 주도하는 간접적 통제 중심의 정책계획(policy planning), 이익집단 대표들의 협상에 의한 조직계획(corporate planning), 그리고 참여계획(participant planning)을 들고, 이 중에서 참여계획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Friedmann, 1973: pp70-84). 또한 그는 복합적 변수(complex variable)로 형성된 도시사회를 계획하는 것이 흔히들 생각하듯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 계획가의 생각과 주민들(clients)에 의해 실천되는 행동의 양자가 결합된 과정(linkage process)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배우는 관계(mutual learning)가 맺어지는데 이를 이른바 교환거래관계(transactive relationship)라고 한다(Ibid.: pp171-85).

Friedmann은 교환거래이론에서 무엇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대화는 우선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고, 도덕적 판단, 감정, 감정이입, 갈등, 호혜정신 등이 상호 이해과정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Ibid.: pp171-83).

이처럼 계획가와 주민이 협동하고 상호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교환거래이론은 인간주의적(humanistic)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계획이론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방향설정의 역할을 해왔다(Michael, 1974: p35). 그리고 Friedmann은 쇄신적 계획

(innovative planning)을 강조하는데, 그 특징은 첫째, 새로운 사회발전 목표를 정당화하고, 둘째,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 장치로 구현시키고, 셋째, 자원의 동원을 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회관리체제의 구조적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이다(Ibid.: p59). 이 이론은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의사소통적 계획이론

1) 의의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계획이론가들은 도시계획을 의사소통적 실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계획이론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Mandelbaum, 1996).

첫째, 실증주의적 계획이론에 있어 이론의 개념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론의 개념을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포스트모던(postmodern)적인 인식론적 상대주의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즉 계획이론가 집단은 보편적이며 유력한 지식형태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다. 이론으로 간주되는 것은 의미와 검증이라는 보편적 기준이 아닌 국지화되고 단편적이며 실용적인 가치표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적 계획이론은 필연적이며 확실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행동을 교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성, 기술, 신념을 요구한다.

둘째, 구조에 비해 기관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초 Marxist적인 정치경제적 접근방법이 지배적이었을 때 구조에 초점을 두었는데, 즉 i) 시장자본주의가 만

들어내는 결과와는 상이한 것을 산출하기 위하여 지방계획당국과 계획가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권력이나, ii) 계획당국이 자본주의의 이념적 전제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려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계획작업에 종사하는 계획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기관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실제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세계상을 갖고 있다(Ibid.: p xvii).

셋째, 과거 계획이론과는 달리 최근 이론에서는 현실적 계획집행, 즉 실무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왜냐하면 의사소통적 계획이론가들이 강조하듯이 계획가는 사람들 - 개발업자, 국가기관(지방)의 공무원, 계획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 - 과 이야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즉 계획을 설득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persuasive story-telling)으로 정의하기도 한다(Throgmorton, 1996). 따라서 실제 계획가는 어떻게 행동하며 적실한 고객과 어떻게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윤리의 지위와 사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의의 담론적 형성(discursive formation)(Habermas, 1984)이 계획에 있어 전문가적 윤리의 중심문제로 대두된다.

요컨대, 계획의 성격, 역할 및 가능성을 구조적인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획이론가들은 의사소통적 이론에 회의를 표출하여 왔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이 계획의 구조적 맥락을 저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내용

비판적 계획 내지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은 Habermas

의 의사소통적 행동이론(Habermas, 1984)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Habermas는 합리성의 개념과 이것의 사회적 행동, 상호주관적 의사소통 및 사회·역사적 변화의 문제들에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Habermas의 기본 주장은 모더니티(modernity)의 해방적 프로젝트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더니티의 해방적 프로젝트란 계몽시대의 기술적 발전이었으며, 도시도 합리적 사고와 행동, 즉 계획에 의해 보다 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그런데 계몽의 세 가지 문화적 영역들, 즉 과학·도덕 및 예술은 자본주의의 산물인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나아가 이 세 가지 영역들은 생활세계(lifeworld)에서 점차 떨어져 전문가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한 생활세계의 침입과 체제의 수단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Habermas는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을 개발하는데 그 핵심은 합의와 행동의 기초로서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상적 언표 상황’(ideal speech situation)에서 의사소통은 권력·이기 또는 무지에 의해 더 이상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적 행동이론의 개발과 함께 Habermas는 다른 세 가지 행동을 구별하는데 i) 목적지향적(teleological) 행동, ii) 규범적으로 규제된(normatively regulated) 행동, iii) 극작적(dramaturgical) 행동이 그것이다. 목적지향적 행동은 목적에 도달하는 것, 즉 성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바라던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규범적으로 규제된 행동은 어떤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미리 정해진 공동가치에 따라 정향하게 하느냐를 말한다. 한편 극작적 행동은 관객을 위한 특정한 행태나 이미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관객에게 자신을 표현

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이 행동에서는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전략적 형태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의사소통적 행동은 개인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가능한 둘 이상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다. 각 주체는 합의에 의해 각자의 계획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황과 각자의 행동계획안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계획의 기초로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Forester는 Habermas의 이상적 언표와 후기 구조주의자(poststructuralist)의 언어관심을 조합하여 계획을 미시정치(micropolitics)적으로 해석하고 있다(Tewdwr-Jones & Allmendinger, 1998, p1977). ‘의사소통적 계획’(Forester, 1989), ‘논쟁적 계획’(Forester, 1993), ‘토론을 통한 계획’(Healey, 1992), ‘협력적 계획’(Healey, 1997) 등이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행동이론을 계획이론으로 변형시킨 것들이다.

계획에의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Healey, 1992: pp145-6).

- i) 계획은 상호작용적이며 해석적 과정이다.
- ii) 계획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담론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 iii) 그 방법은 존중하는 개인·문화 간 토론이어야 한다.
- iv) 공공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문제·전략·기술 그리고 가치 등이 확인되고, 토론되고, 평가되며, 갈등이 조정되는 투쟁의 장에 초점이 두어진다.
- v) 정책 개발의 상이한 형식과 형태에 대한 다방면의 주장들이 존재한다.
- vi) 참여자들로 하여금 평가하고 재평가하게 하는 성찰적 능력이 개발된다.

- vii) 전략적 담론이 시작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이는 다시 새로운 계획 담론을 생성한다.
- viii) 담론에의 참여자들은 새로운 관계, 가치 그리고 이해를 학습함과 더불어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 ix) 참여자들은 기존의 재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 x) 참여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나열하고 동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계획원망(planning desires)을 실제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고무·격려되어진다.

한편 계획의 기초로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세 가지 큰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Habermas의 이상적 언명상황과 언어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관심의 조합에 기초한 계획(실제)의 미시정치적 해석이다(Fischer & Forester, 1993).

둘째, 첫 번째 이상을 실제와 비교하는 민족지학적(ethnographic)연구다(Healey, 1992; 1996; 1997).

셋째, 협력적 계획에 관한 가장 발전된 설명과 도구적 합리성의 비판이다(Dryzek, 1990).

이러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에 관한 해석의 변화다. Richardson(1996)이 요약하고 있듯이 의사소통적 계획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 i) 이상적인 다원적 정치체제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ii) 새로운 의사소통적 방식으로 합리성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iii) 새로운 통합된 계획이론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iv) 친 모더니즘적이며, v) 정책 분석가 또는 계획가를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

3) 계획가의 역할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에서의 계획가의 역할은 다분히 유토피아적이다. Forester(1980)는 계획가에게 의사소통 매개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계획행동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적이며, 관심을 끌고 기대를 창출한다. 따라서 계획가는 일상적 의사소통의 네 가지 규범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고, 진지하며, 적법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다(Habermas, 1979: pp2-3).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계획맥락에 있어 정보를 숨기고 왜곡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규범에 입각하여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계획가의 역할에 있어 유토피아적 측면이 있지만 그의 일에 이러한 역할해석이 포함될 때도 그는 계획가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VI. 결론

계획과 계획가의 역할은 사회적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태동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내는데, 그 패러다임에서는 행동의 유연성과 최대한의 자유가 중심요소가 된다. 계획 패러다임은 유능한 계획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상이한 계획 전통과 방법을 숙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상이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접근방법이 시도되어야 하며, 계획안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 익숙해야 한다. 계획가는 수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떤 주어진 순간에 그 역할이 어디까지 진전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 일련의 상이한 지적인 스승과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매력적인데 왜냐하면 이전의 사고에서는 답할 수 없었던 질문에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답할 수 없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면서 다음 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길을 트고 있다.

Friedmann(1987)은 계획이론에 관한 논문을 쓰고 가르치는 데 있어 놀랄만한 계획사고의 역사와 계획이론을 분류하는 카테고리로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준 반면, 만약 우리가 계획이론가들의 세계관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게 되고 이러한 이론가들의 업적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태동하는 패러다임에 관심을 갖는다면 한 학문분야로서 계획이론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새로움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Alexander(2003)는 '이론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 없이는 계획실체는 없다'는 Friedmann(2003, p8)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계획의 일반이론의 불가능성은 계획이론가들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보고 있다. 절차적 계획이론을 주장하는 모든 이론가들은 이를 무시하는 반면 범주적·규범적인 계획이론의 일반적 타당성과 보편적 적실성을 암암리에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이론이 교환거래계획(Friedmann, 1973; 1993), 급진적 계획(Friedmann, 1989), 의사소통적 실제의 체계모니적 주장(Beauregard, 1986) 등이다. 계획에는 다양한 실체가 있으며 상이한 맥락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계획가들은 상이한 계획이론을 만들어야 한다(Alexander, 2005). 따라서 그 유형의 이론들은 대부분 실제에 부적실한데 만약 그것들이 계획 실무가들의 생활 세계에서 경험한 조건에 연결되는 상황적 틀 내에서 그 이론들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장소 만들기(Healey, 1997), 토지이

용계획과 개발통제(Alexander, 2001), 도시설계(Sternberg, 2000) 등 보다 하위부분에 있어 형태계획이론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이며 생성적(일반적) 계획이론들은 그것들이 우연히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형태의 실제에 적실하지 않으며 적실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황적 관점을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Alexander는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할 일련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상황적 관점을 철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만드는 상위 이론(meta-theory)적 뼈대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탐구와 처방 모두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확인되고 기술될 상황들의 집합이 부족하다. 셋째, 이러한 각각의 상황들에 있어 조작적이고 실생활 문제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고 적실한 의사결정 모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

Alexander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첫째, 계획이론은 수세기가 지난 합리적 유산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상황적 패러다임조차 동일한 합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시놉틱 계획이상(synoptic planning ideal)이 다른 계획전통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강력한 시놉틱 패러다임과 비교를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획의 개념 및 계획가의 역할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황적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과학이론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은 나에게 '무엇이든 좋다(anything goes)'(Feyerabend, 1975)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극하는 많은 문을 열게 하는 태도이지만 Kuhn의 의미에서의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 같지 않다.

실제 계획상황에서는 적실한 맥락에 있어서 적응할 필요성이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연구에 있어서는 문제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계획에 관한 연구가 정체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인 것이다. Nietzsche처럼 계획이론도 그 어떤 시대이던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유행불가능성이 결정적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론만큼 실제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Alexander, 1992: p2).

참고문헌

- Alexander, E. R. 1984. "After rationality, what?". *J.A.P.A.* 50(1) : pp62-69.
- Alexander, E. R. 1992. *Approaches to Planning: Introducing Current Planning Theories, Concepts, and Issues*. 2nd ed. New York: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 Alexander, E. R. 2001. "What do planners need to know?". *J.P.E.R.* 20(3) : pp376-80.
- Alexander, E. R. 2003. "Response to 'why do planning theory?'". *Planning Theory*. 2(3) : pp179-82.
- Alexander, E. R. 2005. "What do planners need to know? identifying needed competencies, methods, and skills".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22(2) : pp91-106.
- Beauregard, R. A. 1986. "Planning practice". *Urban Geography*. 7(2) : pp172-8.
- Broady, M. 1968. *Planning for People*. London: Bedford Square Press.
- Camhis, M. 1979. *Planning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Dalton, L. C. 1986. "Why the rational paradigm persists: the resistance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practice to alternative forms of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5 : pp147-53.
- Dear, M. & A. J. Scott (eds.). 1981.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Methuen.
- Dryzek, J. S. 1990. *Discursive Democracy: Politics, Policy and Politic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n, E. S. Jr. 1971.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 Process of Social Learning*.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 Faludi, A. 1973. *Planning Theory*. Oxford: Pergamon Press.
- Feyerabend, P. 1975. *Against Method: Outline of an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 London: NLB.
- Finer, H. 1945. *Road to Reac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 Fischer, F. & J. Forester(eds.). 1993. *The Argumentative Turn in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Forester, J. 1989. *Planning in the Face of Pow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orester, J. 1980. "Critical theory and planning practice". *J.A.P.A.* 46(3) : pp275-286.
- Forester, J. 1993. *Critical Theory, Public Policy, and Planning Practice: Toward a Critical Pragmatis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orester, J. 1999. *The Deliberative Practitioner*. Cambridge: The M.I.T. Press.
- Friedmann, J. & B. Hudson. 1974. "Knowledge and action: a guide to planning theory". *J.A.I.P.* 40(1) : pp2-16.
- Friedmann, J. 1973.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 Friedmann, J. 1969. "Notes on societal action". *J.A.I.P.* 35(5) : pp311-318.
- Friedmann, J. 1987. *Planning in the Public Domain: From Knowledge to Ac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edmann, J. 1993. "Toward a non-Euclidean mode of planning". *J.A.P.A.* 59(4) : pp377-9.
- Friedmann, J. 1998. "Planning theory revisited". *European Planning Studies* 6(3) : pp245-53.
- Friedmann, J. 2003. "Why do planning theory?". *Planning Theory* 2(1) : pp7-10.
- Galloway, T. D. & R. G. Mahayni. 1977. "Planning theory in retrospect: the process of paradigm change". *J.A.I.P.* 43(1) : pp62-71.

29. Giddens, A. 1994. *Beyond Left and Right: The Failure of Radical Poli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0. Habermas, J.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trans.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31.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 by T.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32. Hampden-Turner, C. 1971. *Radical Man: The Preces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Garden City, N. Y.: Anchor Books.
33. Hayek, F. A. 1944. *The Road to Serf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4. Healey, P. 1992. "Planning through debate: the communicative turn in planning theory". *Town Planning Review* 63 : pp143-162.
35. Healey, P. 1996. "The communicative turn in spatial planning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spatial strategy form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3 : pp217-34.
36. Healey, P. 1997. *Collaborative Planning: Shaping Places in Fragmented Societies*. Vancouver: UBC Press.
37. Healey, P., G. McDougall & M. J. Thomas (eds.). 1982. *Planning Theory: Prospects for the 1980s*. Oxford: Pergamon Press.
38. Hudson, B. M. 1979. "Comparison of current planning theories: counterparts and contradictions". *J.A.P.A.* 45. pp387-406.
39. Innes, J. 1995. "Planning theory's emerging paradigm: communicative action and interactive practice". *J.P.E.R.* 14(3) : pp183-9.
40.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41. Keeble, L. 1969. *Principles and Practice of Town and Country Planning*. 4th ed. London: The Estates Gazette Limited.
42. Kuhn, T. 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3. Kuhn, T. S. 1977. *The Essential Tension: Selected Studies in Scientific Tradition and Chan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4. Lindblom, C.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A.R.* 19 : pp79-88.
45. Mandelbaum, S. 1966. "Introduction: the talk of the community". in S. J. Mandelbaum, L. Mazza & R. W. Burchell (eds.). 1996. *Explorations in Planning Theory*. New Brunswick, NJ: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 ppxi-xix.
46. Mandelbaum, S. J., L. Mazza & R. W. Burchell (eds.). 1996. *Explorations in Planning Theory*. New Brunswick, NJ: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47. McConnell, S. 1981. *Theories for Planning*. London: Heinemann.
48. McLoughlin, J. B. 1969.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 System Approach*. Oxford: Pergamon Press.
49. Meyerson, M. & E. C. Banfield. 1955. *Politics, Planning and the Public Interest*. Glencoe Ill: The Free Press.
50. Michael, D. M. 1974. "Speculation on Future Planning Process Theory". in D. R. Godschalk (ed.). *Planning in America: Learning from Turbulence*. Washington, DC: A IP Press.
51. Paris, C. 1982. *Critical Readings in Planning Theory*. Oxford: Pergamon Press.
52. Richardson, J. 1996. "Foucauldian discourse: power and truth in urban and regional policy mak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4 : pp279-292.
53. Sandercock, L. 1998. *Towards Cosmopolis: Planning for Multicultural Citie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54. Schon, D. A. 1971. *Beyond the Stable State*. New York: The Norton Library.
55. Scho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56. Scott, A. J. 1984. "A comment on Taylor's procedural theory of planning".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11 : pp127-9.
57. Scott, A. J. & S. T. Roweiss. 1977. "Urban planning in theory and practice: a reappraisal". *Environment and Planning A* 9 : pp1097-1119.
58. Sternberg, E. 2000. "An integrative theory of urban design". *J.A.P.A.* 66(3) : pp265-78.
59. Taylor, N. 1998a. "Book reviews: explorations in planning theory". *Urban Studies*, 35(12) : pp2373-5.
60. Taylor, N. 1998b. *Urban Planning Theory Since 1945*. London: Sage.
61. Taylor, N. 1999. "Anglo-American town planning theory since 1945: three significant developments but no paradigm shifts". *Planning Perspectives* 14(4) : pp327-45

62. Tewdwr-Jones, M. & P. Allmendinger. 1998. "Deconstructing communicative rationality: a critique of Habermasian collaborative plann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 pp1975-89.
63. Throgmorton, J. A. 1996. *Planning as Persuasive Storytelling: The Rhetorical Construction of Chicago's Electric Fu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논문 접수일 : 2006. 1. 4
· 심사 시작일 : 2006. 1. 10
· 심사 완료일 : 2006. 2. 17

K C I

ABSTRACTS

The Evolution of Planning Theories in a Paradigm Perspective

Soo-Jang Lee Professor, Dept. of Urban Engineering, Kangnam Univ.

※ Keywords : Paradigm, Physical Planning Theory, Theory of Rational Planning Process,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In recent times it has become fashionable to describe major changes in the history of ideas as ‘paradigm’ shifts. This article describes the evolution of planning theories in a paradigm perspective. Since the end of Second World War, ideas about urban planning have changed significantly. Especially as part of urban planning studies, planning theories have been evolved and/or developed too. Overviewing the history of urban planning thought upon some criteria, I insist that there have been three outstanding changes in planning thought over this period. I think four theories are qualified as paradigm: physical planning theory, theory of rational planning process,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I examine them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 examine the prevailing conception of the nature of urban planning as a discipline: that is, the view which most urban planner held in the post-war years about the kind of activity they were engaged in. A useful way of approaching this is to imagine a leading urban planner of the post-years being asked by an intelligent layperson: ‘what is urban planning?’. Second, I examine the main views held during the post-war period of what the purposes or aims of urban planning should be. This necessarily involves an inquiry into the values which underpinned urban planning at this time: that is, I examine the normative theory of planning which predominated in these years.

к с і